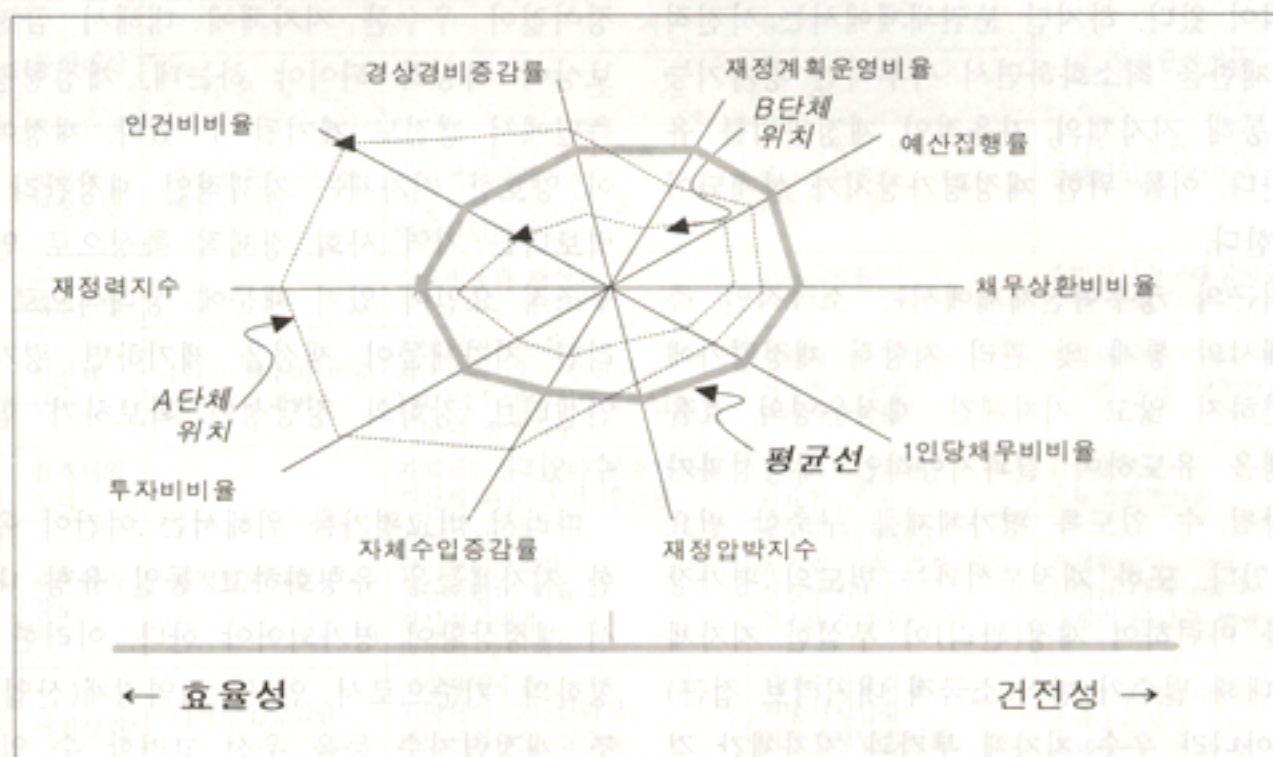


(그림 2) 지방재정다이아몬드 구상



된다. 하지만 재정위기 요인이 없다는 것이 지 비효율성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효율성 쟁점은 모두가 가치판단, 자치와 자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행 재정지표들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단위별로 비효율성의 단초들은 식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직접 지표화하여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재정정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재정거버넌스가 자율적으로 재정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중범위 정책정보가 다양하게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재정분석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재정정보들은 표준화된 형태의 백서로 발간하

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웹기반정보서비스망을 구축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분석 결과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다이아몬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전국 평균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재정평가장치 설계의 접근

지방재정 운영에서 요구되는 보편적 재정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본 역할이다. 대표적으로 건전 및 효율재정운영의 규범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보편적 규범들은 사전적인